

한국농어촌공사, 대שא양수장서 통수식 개최

기사입력 : 2023-04-20 15:54:06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오전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 운영하는 대שא양수장에서 우순풍조(雨順風調: 농사에 알맞게 기후가 순조로움) 및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개최했다.



경남과 부산, 울산지역을 대표한 이번 통수식에는 대저농협·한림농협 조합장과 강경학 농어촌공사 부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온화한 기후와 대풍을 기원했다.

강경학 부사장은 "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기반을 관리함으로써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인력과 장비, 자재와 기술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서정훈 김해양산부산지사 지사장은 "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지관리에 힘쓰며 합리적인 물관리를 바탕으로 질 좋고 맛있는 쌀로 풍년농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김해평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שא양수장은 2010년도에 설치돼 535ha의 농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'가야뜰'로 대표되는 고품질 쌀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종구 기자 jglee@knnews.co.kr

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

